

월요광장

명절의 종말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이제 곧 추석 연휴다. 길이 막혀도 사람들은 고향을 찾을 것이고, 며칠 동안 서너 세대가 모여 대가족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 끝은 어떻게? 가족과 친지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귀경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마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장만하고 치우느라 몸이 쑤실 것이고, 누군가는 집안 대소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갈 것이며, 귀향을 거부하고 '나 홀로 추석'을 보낸 누군가는 왠지 모를 허전함에 술잔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절은 불명 스트레스다. 오죽하면 명절 때마다 '명절중후군 대처법' 등이 등장하겠는가.

실제 그 스트레스와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벌어지는 가정 폭력만 하더라도 계속 증가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설까지 지난 3년간 명절 기간 동안 벌어진 가정 폭력은 명절 하루당 평균 974건이다. 이는 평소와 비교할 때 44%가 많은 것이다. 그뿐 아니다.

명절 이후에는 '이혼'에 대한 검색 횟수가 20% 전후로 늘어난다. 이혼한 4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남자는 44.5% 그리고 여성은 60.2%가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 결심을 하게 된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수혜자는 없다. 전 세대에 걸쳐 피해자 들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명절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 갈 수는 없을까? 문화와 풍습은 시대의 흐름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의미 있는 의례와 관습이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죽었다고 상여를 매지 않으며, 예순의 나이를 넘겼다고 잔치를 여는 사람은 없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명절과 절기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시대의 문화와 의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기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기술의 변화를 문화가 뒤쫓아 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문화 차이로 인해 명절은 문화 충돌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

3대를 놓고 보면 조부모는 농경사회 세대, 부모는 산업사회 세대, 자녀는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라 온 환경과 문화는 너무 다르다. 한국에서 특파원을 지낸 프랑스 언론인 장 피엘은 이를 두고 "지금 한국에서는 고대와 현대가 겹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국의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는 의식의 간격이 너무 커서 같은 한국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절 스트레스는 이제 '상호 이해와 배려'를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명절 문화가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 가만히 보면 이미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명절은 어떻게 바뀔까? 첫째, 더욱 간소화 될 것이다. 스톨 워딩처럼 스톨 명절이 될 것이다. 지극처럼 음식을 장만하고 치우느라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는

지나친 명절 노동은 사라질 것이다. 둘째, 시대 중심의 명절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시대에 모여 할 일 다 하고 차례 지낸 다음 남은 시간에 친정을 방문하는 문화는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게 점점 더 균형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셋째, 명절과 제사의 통합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명절과 명절이 통합되고 나아가 명절과 제사가 통합될 것이다. 1년에 한 번으로 세상을 떠난 가족을 추모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날이 합쳐질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어떤 집은 애완동물이나 감정로봇의 제사까지 그날 같이 지낼지도 모르겠다. 넷째, 다양성이다. 명절은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약해짐에 따라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지낼 것이다. 고향을 고수하기 보다는 가족 여행과 같은 형태로 좀 더 자유로운 명절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기존 직업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명절 또한 없어질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도 본능을 넘어설 수는 없다. 우리는 옛속까지 사회적 존재이며, 가족이란 우리의 원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명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 흐름에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법조칼럼

'나이롱 환자'가 되라는 말은 이제 그만



이승민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들이받은 것이다. 몸 상태는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았고, 차에서 내려 자동차의 파손 상태를 살펴보니 범퍼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였다.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은 다음, 일단 회사로 향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뒤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는 보통 이렇다.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한 의금도 더 받고 회사도 며칠 쉬고 얼마나 좋아?".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가 되라는 소리다. 물론 교통사고를 당해 실제 몸이 아파도 회사에서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 걱정돼 그동안 마음껏 드러누워 보지 못한 대다수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보험 사기 범행을 교사하는 것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2016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 사기 피해액은 2조5000억 원이고, 보험 사기로 인해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가 적발된 인원만 32만 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돈 잘 버는 보험 회사들이 손해를 좀 보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보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인이 미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출연해 공동 준비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게 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고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보험 사기 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금 청구서를 받는 보험회사는 점점 더 엄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사고를 당해 보험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지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그러한 보험 사기 리스크까지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한다. 결국

보험 사기로 인한 손해는 선의의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면 보험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험 사기는 쉽게 적발이 된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지는 않는다. 손해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굳이 좀 더 하자면 연금보험 정도 가입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동시에 대여섯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면 당연히 보험회사나 금융 당국, 수사 기관으로부터의 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의료 기관은 법령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의료 기록, 일지 등을 꼼꼼히 기록해 보관하도록 돼 있고, 보험회사나 금융당국은 같은 질병에 걸렸던 수많은 환자의 평균적인 치료 기간, 입원 기간 등에 대한 전산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쉽게 적발해 낼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 환자의 전화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만 조회해 봐도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출해 돌아다니는 사실도 알 아닐 수 있다.

둘째, 보험 사기를 통해 개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입원 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것인데, 실제 보험 사기로 인해 보험회사가 입는 피해에는 그러한 수당은 물론 불필요한 진료, 검사 및 입원 등을 위해 병원에 지급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즉 보험 사기범은 자신이 얻은 실제 이익에 비해 훨씬 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셋째, 보험 사기에 재미가 들린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은 낙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때문에 보험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험사기범은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도 제정돼 있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사기범을 잡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기 고

'건축의 날'에 그려보는 광주의 소망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1395년 9월 25일은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 창건일이다. 이때 지은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현재의 모습은 조선 말기인 1867년(고종 4년) 11월에 흥선대원군이 136년만에 중건(重建)한 것이었다. 다포양식(多包樣式)의 건물로, 조선 말기의 건축·공예·미술의 결정체이자 현존하는 최대 목조 건축물이다. 경복궁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사적 전통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경복궁의 야간 개장은 그 경정물이 치열해 표를 구하기도 힘들만큼 인기가 높다. 경복궁 창건일에 맞춰 대한건축학회는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발전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9월 25일을 '건축의 날'

로 제정했다. '건축의 날'은 대한민국 건축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미래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 건축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일반인에게 알리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건축 환경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그 다음엔 건축물이 우리를 만든다"는 명언을 남겼다. 인간과 건축물의 관계에 대해 논평한 이 말처럼, 그 동안 건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종합예술로서 인류와 함께 발전해 왔다.

인류는 다양한 건축행위를 통해 도시를 형성했으며 도시는 인류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포함하는 문명의 배꼽이 되어왔다. 건축과 인류 그리고 도시가 맞물려 역사를 만들어내고 발전하며 진화해 온 것이다. 위대한 건축가로 손꼽히는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가 바르셀로나 시내와 인근에 지은 7개의 건축 유산을 보기 위해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스페인을 방문한다. 또 1900년 전에 세워진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이렇듯 고대 건축물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유는 고대 건축물이 존

재하는 도시가 뿜어내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거기에 녹아들어 숨 쉬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사상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만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하는 것인가? 먼저 광주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물이 건립되기를 바란다.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등은 각 도시의 대표 건축물로서 도시의 이름에 버금가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누구나 떠올리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 고유의 전통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성이 묻어나지 않더라도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을 '랜드마크'라고 부르고 도시의 마케팅과 브랜딩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크리에이티브한 도시 경쟁력을 표출하고자 하는 런던의 새로운 명물 '런던 아이'라든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타이페이의 '101빌딩'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랜드마크가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 이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으며, 이 건물이 도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 또한 해외 각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광주'하면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축물 건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획일적인 상자형 건축물, 콘크리트 덩어리에 의한 도시 풍경화, 문화적 콘텐츠의 부재 등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만의 색깔 있는 도시경관과 도시구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양림동 역사마을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100년이 넘는 거목이 즐비한 숲을 이루는 양림동은 역사와 건축, 문화예술의 박물관이다. '팬린마을'처럼 특색있는 마을 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의 날'을 맞아 '살고 싶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건축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망한다. 국가간 경쟁체제를 넘어 도시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건축의 날'을 맞아 세계 속에 광주만의 건축문화가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社說

'전두환도 피해자' 여수MBC 사장의 망언

심원택 여수MBC 사장의 망언이 불의를 빚고 있다. 5월 단체들에 따르면 심 사장은 지난 5월 직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었다" "전두환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5월 단체들은 "심 사장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전두환의 입장에서 본 5·18의 기록도 있고 그것도 인정받아야 한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추가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노조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5월 단체들도 "여수MBC 심 사장은 5·18 학살사 전두환의 대변인일 뿐이다"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MBC·KBS 정상화를 위한 전남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 낙하산 사장의 폐해로 여수MBC 심원택 사장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기무사 자료 확보한 5·18 특조위 기대된다

5·18 당시 군(軍) 내 정보를 총괄했던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5·18 관련 존안 자료 일체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학술 책임자로 지목되는 위원장 전 대통령기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점에 대해 사단 측에 달하는 문서 사적 및 압매장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최근 기무사로부터 5·18 관련 문서를 제공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는데 기무사는 물론이고 예하 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수십 상자에 이를 만큼 분량도 방대하다고 한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에 보관된 5·18 관련 자료 50여 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 권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과연 이 자료가 이면에 남긴 자료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과거됐는지 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기존 자료와 제출 자료

대척위는 "심원택 사장은 지난 3월 여수MBC에 부임해 세월호가 3년 만에 물으로 인양되던 시기 직원들 앞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세월호를 왜 인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들은 오늘 오전 여수MBC를 방문해 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5월 정신을 폄하한 언론 직폐를 청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세력들의 5·18 왜곡과 폄해를 보아 오면서 '정신 나간 이들의 헛소리'쯤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심 사장의 황당한 발언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전두환의 추종 세력으로서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울러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거나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흘러야 할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도 함께 느낀다.

無 等 鼓

자신의 월급을 타인과 비교했을 때 "아,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구나"라며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자 소득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 1500여만 명의 2015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은 329만 원이었다. 세금을 떼기 전이지만,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29만 원을 벌어들였다든 이야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은 이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가슴아픈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조금 깊어 들어다보면, 329만 원이라는 숫자는 모든 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더한 뒤, 이를 전체 근로자의 숫자로 나눈 '평균값'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 대상 근로자들을 한 줄로 죽 늘어세운 뒤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값)을 조사한 결과는 241만 원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1500여만 명의 근

로자 중 절반 이하는 매월 241만 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무려 88만원에 이르는 만큼, 발표된 평균값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통계의 오류' 또는 '통계의 함정'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는데, 문제는 그 통계 숫자를 제시하는 측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경우 일반인들로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SOC (사회간접자본) 확대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국민의당 주장에서 촉발된 이 확대론은 민주당이 "수치를 단순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서면서 팩트(사실) 확인보다는 여론전으로 치우치는 모양새다.

특같은 데이터(예산 확보액)를 놓고 양당의 주장이 다른 것은 '통계를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역시 판단은 시민 각자의 몫이다. 통계가 원래 그런 거라면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통계의 한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